

2009년 10월 11일 주일 새벽 3:30-5:00

<주님을 위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것 같았어요.

마음 속으로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 “주일, 수요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큼니까?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? 여쭙어 보았을 때 적어라는 감동과 함께 적기 시작했어요. >

<하나님말씀>

주일, 수요 말씀과 단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은 너무 귀하다.

어찌 영계의 가치를 육계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.

그러나 한마디 하자면,

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있다고 하자.

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노라.

그러나 그에게 필요 없는 도구가 있다면 그는 길을 잃어 생명을 잃겠지.

인생살이도 마찬가지여서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너희의 삶은 말씀의 지도가 없다면 내가 있는 곳 찾아올 수 있겠느냐.

인생 길 잃고 갈 곳 없어 해매이다, 너희를 노리는 사탄 마귀 따라 지옥 길로 간다.

사랑의 지도, 진리를 통해 너희를 이끌고 있노라.

사랑하는 섭리의 신부들이여.

날 사랑하느냐. 얼마나 사랑하느냐. 날 진정 바라보고 있느냐.

나는 너희에게, 사랑해서 매주 선생을 통해 나에게 오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귀히 보지 않고 자꾸 지도를 잃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나에게 오지 못하는 것이냐.

내가 팔을 벌리고 품에 안으려 서 있노라.

진리는 너희가 만들 수 없는 것이다.

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.

너희 선생을 통해 나 여호와가 주고 있지 않느냐.

진리도 여러 가지.

참된 것은 너희가 오늘도 듣는 생명의 이 말씀이니라.

이제부터는 모든 섭리 신부들에게 말하노니,

주일, 수요 말씀의 핵심을 꼭 기록하고 가슴에 새겨 외우고 행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인정할 것이야.

너희가 나의 말을 잊어버리고 찢어버리는 순간, 나의 마음도 너희에게서 잃어버림바 될 것이다.

천 법이니 지키고 행하라.

나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변하는 것을 너희가 정녕 보지 못한 것이지.

영계에 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.

그러나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가운데 이루어내는 자, 내가 그 자의 마음을 높이고 살 것이니라.

나 여호와의 말을 믿고 들을지이다.

오늘부터 보겠노라.

얼마나 가슴에 이 진리를 새겨놓고 사모하며 행하는지 말이다.

나의 말 한마디 없으면 이 세상 존재할 수 없고

내 아들 예수의 말 한마디 없으면 너희 이미 사망길이다.

선생의 몸부림 너희는 상상도 못하니 그저 감사 감격, 눈물 흘리며 진리 사모하며 실천하라.

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나의 말을 듣는 순간이니라.